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이 희 영**

차 례

1. 서론
2.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
3.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 강조'와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 그리고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 강조'는 遊宴·賀禮·謝禮 등의 유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의례적 행사에서 문인들의 사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칠언배율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은 送別·寄贈·和答의 次韻相酬하는 경우가 많은데, 次韻詩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文化를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은 『동문선·오언배율』에서의 選詩 경향인 전통적 배율의 功能성을 포함하여, 한편으로는 오언배율과 구분할 수 있는 內容을 확인하였다. 칠언배율은 求官의 奉贈과 같은 功能적인 측면에서 동일함을 보이지만, '題詠·集句·題畫·勸戒·挽章'의 題材는 오언배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題材는 칠언배율의 활용에 있어서 오언배율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문선』에서의 칠언배율에 대한 選詩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측면과 칠언배율의 選詩 樣相을 통하여 具體적인 詩體의 활용 양상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동문선(東文選)』, 시선집(詩選集), 칠언배율(七言排律), 배율시(排律詩), 응수(應酬), 유희(遊戲)

1. 서론

본고는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칠

* 본 연구는 2023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조교수

언배율은 칠언율시가 확장한 형태이며, 首尾를 제외하고 對仗이라는 詩律을 따르다는 측면에서 作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唐詩에서 칠언배율은 103수(詩律에 맞는 배율은 73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작품성에 있어서는 부정적 측면의 의견이 많다.¹⁾ 칠언율시가 寄贈詩·和答詩·送別詩라는 사교생활을 題材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칠언배율의 題材 역시 先例에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題材의 제한은 杜甫에 이르러서야 다양성을 확보하고, 白居易는 일상의 영역에서 元稹과 次韻相酬하면서 활용의 폭을 넓혔다.

『동문선·오언배율』에서의 選詩는 전통적 배율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장편 배율 및 서정적 성격의 배율을 수록한 특징이 있었다.³⁾ 『동문선·오언배율』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사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오언배율은 궁정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의례적 상황에서 君臣과 조정의 관리, 문인들이 唱和하는 과정에서 作詩하고, 과거시험을 통한 문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영역에서 오언배율을 作詩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칠언배율은 唐詩에서 작품의 숫자가 적고, 일부 문인들에 의하여 作詩가 이뤄졌기 때문에, 역대 詩選集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⁵⁾ 칠언배율이 七

1) 칠언배율의 작품 숫자는, 張一南(『唐代的七言排律』, 『西南民族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16(7))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작품성에 대한 논의는 姜民浩(『杜甫 七言排律의 특성과 한계』, 『중국문학』 93, 한국중국어문학학회, 2017)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2) 김준연, 『당대칠언율시연구』, 역락, 2004, 246쪽.

3) 이희영, 『『東文選』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8, 동양고전학회, 2022.

4) 松原郎, 「杜甫における排律の完成 : 成都期以降における排律の抒情化をめぐる」, 『中國文學研究』 6, 早稻田大學中國文學會, 1980; 松原郎, 「初唐期における五言排律の形成をめぐる」, 『中國詩文論叢』 1, 中國詩文研究會, 1982; 郭新和, 「試論元白詩派的五言長篇排律」, 『河南師範大學學報』 24(1), 1997; 許德楠, 「“鋪敘感慨”的需要, 詩體發展的必然 : 略論杜詩的排律」, 『杜甫研究學刊』 80(2), 2004; 沈文凡, 「排律文獻學研究」, 陝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05; 沈文凡·周非非, 「長律」, 「排律」名稱之文獻緝考 : 以唐宋元明時期作為考察範圍」, 『東北師大學報』, 2009(6); 丁放·袁行霽, 「宮廷中的詩人與盛唐詩壇 : 盛唐詩人身份經歷與創作關係研究之一」,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9(1); 杜學霞, 「元稹排律創作的得失」, 『人文社會科學學報』 30(3), 南都學壇, 2010; 劉慧寬, 「長吟與苦怨 : 試論柳宗元長篇排律詩的創作」, 『哲學與人文科學』, 2015(5); 彭笑遠, 「杜牧律詩變體及其詩學意義」, 『貴州工程應用技術學院學報』, 北京青年政治學院社科部, 2017(4); 鄭佳琳, 「五言排律在詩學理論上的闡述過程及命名原理探析」, 『文藝理論研究』 42(02), 2022.

5) 『唐音』과 『唐詩品彙』에 각각 2수와 4수를 수록하고 있다.

言이라는 字句의 여유와 篇幅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열식의 증첩한 경물 묘사와 같은 對偶의 過剩이 칠언배율이 외면을 받은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한다.⁶⁾ 『동문선·칠언배율』은 38제 40수의 칠언배율을 수록하고 있으며, 편폭은 6운부터 장편의 30운까지 다양하다. 作詩者는 고려전기 金富軾부터 조선 전기 崔恒에 이르기까지 총 28명이다. 『동문선』에서의 칠언배율에 대한 選詩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칠언배율의 作詩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부족이 있지만, 이규보는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문인들과 次韻相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여기에서 이규보는 장편의 칠언배율로 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 시대 문인들의 칠언배율 활용과 관련하여 作詩 경향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⁷⁾

『동문선·칠언배율』은 칠언배율에 대한 詩選集이라는 것과 고려 시대를 포함한 조선 전기 문인들의 칠언배율을 활용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동문선·칠언배율』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 강조’와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 그리고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⁸⁾

2.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

2.1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를 강조

『동문선』에 수록한 칠언배율은 遊宴·賀禮·謝禮 등 유희적 상황을 반영한 경우가 많다. 作詩의 공간은 임금을 扈從하는 사찰·정치적인 유력자의 私邸·朝廷·鄕校 등이다. 참여자들은 君臣 및 유력자와 중간 관리, 개별 문인이며, 作詩

6) 松浦友久, 「七言排律不盛行的原因: 對偶表現の本質から」, 『中國詩文論叢』 19, 中國詩文研究會, 2016; 강민호, 「杜甫 七言排律의 특성과 한계」, 『중국문학』 93, 한국중국어문화회, 2017.

7) 이와 관련해서는 前川幸雄, 「知的遊戲の文學: 元·白唱和詩の種種相」, 『中國文學の世界』 5, 笠間書院, 1981)의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적 유희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희영, 「李奎報 排律研究(3): 致仕 以後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1)의 논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었다.

8)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影印標點東文選』(1994)을 저본으로 하였다.

者は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의례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상황에서 문인들의 사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칠언배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제목	作詩者	편폭	비고
敎坊小娥	李需	20운	遊宴
次韻	李奎報	20운	遊宴
次李需敎坊少娥詩韻	崔滋	20운	遊宴
復次韻	崔滋	20운	遊宴
扈從安和寺應製	趙永仁	10운	遊宴
次韻	柳公權	10운	遊宴
次扈從安和寺應製詩	崔謙	10운	遊宴
拙詩六韻，呈狀元修撰宋本誠夫先生，兼奉示同年諸公，共爲一笑	崔灑	6운	遊宴
次賀琴平章得外孫	李奎報	6운	賀禮
賀琴平章得外孫	趙冲	6운	賀禮
賀崔中令赴內宴	金行瓊	6운	賀禮
前判三司孫，自外進闕，賜鳩杖	卓光茂	12운	賀禮
永嘉鄉校諸仙，設宴送行，作詩爲謝	李頊	6운	謝禮

李需의 〈敎坊小娥〉는 1240년 崔瑀의 강화도 私邸에서 賓客을 모아 놓고 즐겼던 宴會의 모습을 시로 지은 것이다. 李奎報와 崔滋는 이수(李需)의 시를 바탕으로 차운하였다. 이규보는 연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수(李需)의 시와 그날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시를 지었다. 이규보의 차운시는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并序」라는 제목으로 『동국이상국후집』 권8(『한국문집총간』 권1, 217쪽)에 수록하고 있는데, 작품의 序文은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한다. 서문에는 7~8살밖에 안 되는 女童의 재주가 뛰어나며, 이러한 공연을 임금께도 보여드리어서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⁹⁾ 〈敎坊小娥〉는 遊宴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

9)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并序〉, 『동국이상국후집』 권8, 『한국문집총간』 권2, 217쪽. “僕竊聞，令公閣下以機務之隙，大集賓客，爲度夜之樂。其妓樂絲竹，則皆所常有，別有女童輩，年可七八，聰利警悟，凡日伶才，無所不曉。公於此爲樂，以愛君之心，不忍獨賞，進供御覽，上亦

우의 치적을 기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을 띠고 있는 시이다.

〈教坊의 어린 기녀〉

梁楚歡情結灌瓜,	양나라 초나라 友好의 정은 오이밭에 물 주는 것으로 맺었으니,
從今塞外戡干戈.	지금부터 국경 밖의 전쟁이 그치리라.
芙蓉幕府香塵靜,	芙蓉 幕府에는 향기로운 먼지 고요하고,
翡翠樓臺瑞氣多.	翡翠 樓臺에는 상서로운 기운 많네.
世祝我公長綠髮,	세상은 우리 공께서 늙지 않기를 늘 기원하고,
天分仙女遣青蛾.	하늘은 선녀 중에서 이 아이들을 구분하여 보냈네.
樂章已了三千曲,	樂章은 이미 삼천 곡을 마쳤고,
稚齒俄臨五六儺.	어린 나이에 빠르게 儺禮를 대어섯 번 하였네.
…(中略)…	…(중략)…
金穴共承偏雨露,	金穴을 공손히 받드니 은택을 듬뿍 받고,
玉笙長弄定風波.	玉笙을 늘 연주하니 바람 물결을 진정시키네.
烏紗小小裁華帽,	작디작은 검정 비단으로 華帽을 짓고
鳳繡微微製舞靴.	가늘고 가는 봉황 수놓은 舞靴를 만들었네.
…(中略)…	…(중략)…
樹攢珊瑚積韻醉,	나뭇가지 같은 珊瑚를 받으니 붉은 취한 듯 붉어지고,
桃攢琥珀纈痕配.	복숭아 같은 琥珀을 모으니 취기가 오른 듯 불그스레하네.
瑤琴韻暖粘紅日,	瑤琴 울림 온화하니 붉은 해가 닿는 듯하고,
玉板聲寒凍碧渦.	玉板 소리 차가우니 푸른 소용돌이 어는 듯하네.
羯鼓百枝乾欲罷,	羯鼓를 일백 가지로 치니 하늘에 우렛소리 내려는 듯하고,
鶻衫雙袖疾如梭.	날렵한 적삼을 양 소매 가로지르니 빠른 베틀 북과 같네.
…(中略)…	…(중략)…
欲知勝事逢千載,	이렇게 좋은 일 예전에 있었는지 알고자 하는데,
全賴新都擁一河.	모두 새로운 도읍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이네.
更感周公成洛邑,	다시 주공이 洛邑을 만든 일 느끼게 되고,
不妨韓愈頌元和.	한유가 元和 시대를 기린 것과 같네.
沉香舊服今猶在,	침향정에서의 예전에 있던 일 지금도 여전히 있으니,
記事冰毫口自哦.	언 붓에 입김을 직접 불면서 일을 기록하네. ¹⁰⁾

樂焉，至於連夜開宴。於是詩人文閣李需進詩於邸下，公嘆賞不已，遂進於上，上亦嘉獎，大加褒賞，此公之所以鎮定三韓，將致大平之嘉事也。予雖耄老，聞之不勝嘉歎，謹依韻和成一首奉呈云。”

李需는 강화도 천도 이후, 몽고와의 전쟁이 잠시 그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최우의 私邸에서는 賓客과 小娥가 한데 어우러져 전쟁이 잦아든 태평한 시절을 즐긴다. 이러한 흥취는 수많은 ‘樂章’을 마치고 ‘儺禮’도 많이 경험한 어린 나이의 기녀를 통하여 돋우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공연하고 있는 小娥의 모습을 관조하면서 묘사한다. ‘金穴을 공손히 받드는 모습[金穴共承]·玉笙을 연주하는 모습[玉笙長弄]·瑤琴의 연주[瑤琴韻暖]·羯鼓의 연주[羯鼓百枝]’의 묘사는 小娥의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고, ‘꽃으로 장식한 모자[華帽]·무도화[舞靴]·부끄러워하는 모습[頰暈醉·纈痕醜]’의 외양은 어린 나이의 소녀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수는 이러한 즐거운 遊宴을 본 적이 없으며, 즐거움은 ‘모두 새로운 도읍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이네[全賴新都擁一河]’라고 하여, 최우의 강화도 천도 결정으로 가능했음을 강조한다. 강화도에서의 고려는 唐나라 憲宗의 중흥기에 해당하고, 遊宴의 태평한 정서는 당나라 玄宗이 침향정에서 양귀비와 즐겼던 시대와 같다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遊宴의 목적은 몽고의 침입이 잦아든 태평한 상황이 최우의 공덕이라는 점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시에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우의 노력과 女童의 공연을 통한 흥겨운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 유력자인 최우의 장수를 기원한다. 칠언배율은 君臣 간의 應製의 상황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安和寺에서 扈從하면서 應製하다〉

梅檀寶殿許多層,	梅檀 향기 가득한 寶殿은 겹겹이 몇 층 정도인지,
十里香風鬢橘洲.	십 리에 퍼지는 향내 나는 바람 橘洲를 생각나게 하네.
曾爲遠圖占勝地,	일찍이 원대한 계획으로 좋은 곳을 차지하였고,
又因嘉致創高樓.	다시 좋은 경치로 인하여 높은 누대를 세웠네.
前泉通漢竈應路,	앞의 샘물은 은하수와 통하여 장건의 길과 서로 맞고,
後嶽支天杞不憂.	뒤의 산은 하늘을 지탱하니杞나라 사람도 근심하지 못하네.
幸值良辰仍命駕,	다행히 좋은 시절을 만나 바로 명하여 수레를 탔고,
小留淸賞更探幽.	잠시 맑은 경치에 머물려고 문득 그윽한 곳을 찾았네.
東西仗衛歡聲洽,	東西의 병장기를 든 시위는 환호 소리 넘쳐나고,

10) 『동문선·칠언배율』 권18.

遠近溪山協氣浮.	遠近의 계곡과 산은 온화한 기운 피어오르네.
角奏五更無事曉.	뿔피리 소리 五更의 새벽에도 별일 없고,
河澄九曲大平秋.	맑은 강 아홉 구비의 가을 태평하네.
周王賜宴歌常棣.	周王은 연회를 베풀어 常棣를 노래하였고,
漢帝吟風感蓐收.	漢帝는 풍월을 읊으며 가을날 늙음을 탄식했네.
只罄三歸資福利.	다만 三歸를 다하여 행복과 이익을 구하고,
敢并四事恣遨遊.	감히 四事を 병행하여 자유롭게 노닐겠는가.
君恩海闊魚相樂.	임금의 은혜 바다와 같이 넓으니 물고기와 서로 즐겁고,
聖壽天長鶴自羞.	임금의 수명 하늘과 같이 오래갈 것이니 학이 절로 부끄러워하리라.
似識明朝廻鳳輦.	내일 아침 임금의 수레 돌아가는 것을 아는 듯,
洞門煙景慘爲愁.	洞門에 안개 피어올라 자욱하니 근심스럽네. ¹¹⁾

이 시는 安和寺라는 공간에서 신하들과 遊宴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칠언배율의 선택은 遊宴을 즐기는 공간과 임금이 이곳을 찾은 경위, 의전 행렬의 가지런함,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對仗의 형식으로 성대한 분위기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詩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은 임금이 政事를 잘 실행하여 태평성대의 시절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君臣의 동질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趙永仁은 임금과 함께하는 안화사의 공간을 仙境으로 설정하였으며, ‘좋은 시절[良辰]’에 ‘맑은 경치[淸賞]’의 한가운데 있음을 강조한다.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넘치는 환호 소리[歡聲洽]· 피어오른 온화한 기운[協氣浮]· 조용한 새벽[無事曉]· 태평한 가을[大平秋]’은 대내외적으로 근심이 없는 나라의 상황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佛法에 귀의하는 임금의 모습[罄三歸]과 자연의 질서조차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魚相樂]을 보여준다. 遊宴의 아쉬움은 ‘洞門에 안개 피어올라 자욱하니 근심스럽네[洞門煙景慘爲愁]’라는 것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공간과 상황에서 칠언배율을 활용한 應製는 임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의식적인 창작을 하고, 또한 전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묘사를 통하여 扈從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할 시는 개인적인 儀禮에서 칠언배율을 활용한 사례를 확인하게 한다.

11) 『동문선·칠언배율』 권18.

〈平章 琴儀가 外孫을 얻은 것에 대하여 축하하다〉

排陰命代我先知,	음을 물리친 뛰어난 인물임을 내가 먼저 알았고,
行止休憑六眼龜.	사람의 운명을 거북점에 기댈 필요가 없네.
英物一朝呱呱帳,	걸출한 인물이 하루아침에 비단 장막에서 울고,
微陽午夜動葭帷.	양의 기운이 처음 생기니 한밤중 갈대 문었던 장막이 움직이네.
何煩弓韉勸求子,	활집을 채워서 부지런히 아들을 바랄 필요가 없고,
已呪桃花屢覿兒.	이미 복숭아꽃으로 자주 아이의 얼굴 고와지길 바라네.
叶得半千爲世瑞,	500년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니 세상의 상서로움이 되기에 꼭 맞고,
看將十五作人師.	15세에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됨을 보게 되리라.
文高華國靑錢鸞,	문장은 청전학사 張鸞처럼 높아 나라를 빛내고,
威敵扶王自捧羆.	위엄은 흰 몽둥이로 지켰던 王羆 만큼이나 왕을 모시리라.
自昔通家恩岳在,	예부터 사돈인 장인이 있으니,
賀懷聊展一篇詩.	축하하는 마음 오로지 한 편의 시를 지어 보내네. ¹²⁾

琴儀는 재상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고, 1212년에는 지공거를 역임하는 등 조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다. 고려 시대 최씨 정권에서는 문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위 시는 외손을 얻은 일에 대하여 축하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趙永仁은 동짓날 밤 아이가 태어난 것을 화제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음을 물리치다[排陰]·양의 기운이 처음 생기다[微陽]’의 시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의례적 상황에서의 시는 목적을 잘 구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거북점에 기댈 필요가 없다[休憑六眼龜]·걸출한 인물[英物]·좋은 집안의 후계자[弓韉]·500년에 한 번 나오는 인물[叶得半千]·청전학사 張鸞[靑錢鸞]·흰 몽둥이로 지켰던 王羆[自捧羆]’ 등의 시어를 통하여 文武를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후에 나라의 棟梁이 되길 바라는 祈願을 말한다.

『동문선·칠언배울』에서는 이규보의 〈次賀琴平章得外孫〉 두 번째 수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咸郎의 文才는 세상이 모두 알고 있다[咸郎才調世皆知]”라고 하여 사위인 咸郎을 먼저 언급하고, “外姓에서 좋은 사위를 구하지 못했다

12) 『동문선·칠언배울』 권18.

면, 어찌 諸孫[손자]으로 특별한 아이를 얻었겠는가.[不因外姓求佳壻, 豈向諸孫得異兒.]”라고 하여 外家人 琴儀의 가문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규보는, “깃털은 반드시 하늘 높이 오르는 학이 될 것이고, 담대한 기운은 아마도 나무 뽑는 곰을 삼키리라.[羽毛會作冲天鶴, 氣膽應吞拔樹熊.]”라고 하여 명성과 담대한 기운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하례의 상황을 나타낸 칠언배율은 金行瓊의 <賀崔中令赴內宴>과 卓光茂의 <前判三司孫, 自外進闕, 賜鳩杖>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조정에서 國老를 예우하는 모습을 칠언배율로 지은 것이다. 『고려사·세가』 권8의 문종 2년(1067) 기사에, “여름 5월, 무술일에 나라의 원로를 위하여 閣門에서 연회를 마련하고 의복을 주었다.[夏五月 戊戌 宴國老於閣門賜衣物.]”라고 하였는데, 金行瓊은 이 자리에서 문헌공 최충을 축하하는 시를 짓는다. 탁광무는 孫洪亮이 조정에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받은 일에 대하여 賀禮한 것이다.¹³⁾ <賀崔中令赴內宴>에서는, “尙書승은 中書승을 부축하여 들어오는 것을 돕고, 乙壯元은 甲壯元을 옆에서 걸음 돕네.[尙書令擁中書令, 乙壯元扶甲壯元.]”라고 하여 崔沖(甲壯元 및 中書令)과 두 아들인 崔惟善(乙壯元 및 中書令)·崔惟吉(尙書令)의 모습을 對仗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공적과 업적은 계속 이어져 역사에 전할 것이니, 비록 천 개의 붓이 닳더라도 말하기에 부족하리라.[聯編功業流青史, 雖秃千毫不足言.]”라고 하여, 이러한 대를 잇는 壯元和 政丞의 家業은 역사에 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축하의 의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前判三司孫, 自外進闕, 賜鳩杖>에서는 “역대로 다섯 왕을 이어 벼슬하였다[歷仕五王代]”라는 시구로 시작하였으며, “군자의 처신을 알았다.[知君子機]”와 “시종일관 정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가[謇謇始終能有幾],” 그리고, “緇衣는 오히려 해지면 고쳤고, 鞶帶는 또한 세 번 벗겨지는 것을 경계하였네.[緇衣尙有敝爲改, 鞶帶亦遭三褫譏.]”라고 하면서 손홍량의 인품에 대하여 높이고 있다. 탁광무는 손홍량이 이러한 인물이었기에, “노인을 공경하여 일부러 靈壽杖을 주셨다.[敬老故將靈壽授]”라고 하였으며, “이 鳩杖은 실제로 천년의 보배이니, 바로 역사에 찬란히 빛나리라.[此物實爲千載寶, 定應青史爛光輝.]”라고 하여 鳩杖과 더불어 그의 명성이 오랫동안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로 읊었다.

13) 金宗瑞 外, 『高麗史節要』 권28, 공민왕 13년(1364) 11월에, “전 판삼사사 孫洪亮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 주었다.[賜前判三司事孫洪亮几杖]”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동문선·칠언배울』에는 宴席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사례하는 시도 수록하고 있다. 李璵의 〈永嘉郷校諸仙, 設宴送行, 作詩爲謝〉는 안동 향교의 유생들이 送別宴을 마련해 주었고, 李璵은, “가난한 諸生의 돈독한 마음 참으로 저 버리기 어려워, 주머니에 쌓인 것 다 쏟으니 동전 하나 남았네.[寒生厚意誠難負, 傾盡囊儲到一錢]”라고 하면서 자신도 마음을 다하여 응대한 내용을 시로 남겼다.

『동문선·칠언배울』이 儀禮的 성격의 作詩를 반영한 것은 오언배울과 비슷하다. 그러나 칠언배울은 作詩하는 공간과 환경이 조정의 공식적인 업무나 엄격한 관습을 적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라는 점이다.¹⁴⁾ 대부분은 宴會의 상황에서 주재하는 유력자의 능력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행사의 목적과 상황을 완곡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문선·칠언배울』의 選詩는 遊戲的 상황에서 칠언배울을 활용하는 하나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2.2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

한시에서 送別·寄贈·和答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次韻相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의 시는 자연스럽게 應酬性이 높아진다. 『동문선·칠언배울』에서는 寄贈·和答의 차운시 비중이 높다. 次韻은 和韻의 한 종류이며, 元韻에 해당하는 시의 운을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다. 次韻相酬는 酬唱하면서 차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인들의 문화는 元稹과 白居易로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시대 李奎報는 李需와 4차례 걸쳐 21수의 칠언배울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酬唱의 빈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높인다.¹⁵⁾ 『동문선·칠언배울』에서는 元韻詩를 포함하여 24제 25수의 차운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¹⁶⁾ 한편

14) 『동문선·오언배울』의 選詩 양상에 대해서는 이희영(『동문선』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8, 동양고전학회, 2022, 9~46쪽)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15) 『동국이상국후집』 권7의 〈次韻李侍郎以詩二首送土卵, 予以三首答之〉를 시작으로 차운하는 시는 4수~7수까지 증가시켜 和韻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희영(『李奎報 排律研究(3) : 致仕 以後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1, 255~284쪽)의 논의가 자세하다.

16) 여기에서는 元韻詩와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항목에서 언급한 배울시를 중복 수록

으로 『동문선·오언배울』에서는 상대적으로 3제 3수의 차운시를 選詩하였으며, 칠언배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제목	作詩者	편폭	비고
教坊小娥	李需	20운	遊宴(元韻) 奉呈
次韻	李奎報	20운	遊宴, 次韻, 奉呈
次李需教坊少娥詩韻	崔滋	20운	遊宴, 次韻
復次韻	崔滋	20운	遊宴, 次韻
扈從安和寺應製	趙永仁	10운	遊宴, 次韻
次韻	柳公權	10운	應製, 次韻
次扈從安和寺應製詩	崔謙	10운	應製, 次韻
賀琴平章得外孫	趙冲	6운	賀禮, 次韻
次賀琴平章得外孫	李奎報	6운	賀禮, 次韻
洪英上人以詩見贈, 次韻答之	釋天因	10운	寄贈, 次韻
次韻答皖上人 二首	釋天因	10운	寄贈, 次韻
普門寺	李需	20운	題詠(元韻)
次李需普門寺詩韻	李藏用	20운	題詠, 次韻
童女詩	金贊	10운	儀禮(元韻)
次韻	金贊	10운	次韻
次韻李蒙庵西京懷古	洪侃	8운	懷古, 次韻
蠹石樓	白文寶	6운	題詠, 次韻
晉州蠹石樓, 次鄭勉齋韻	白彌堅	6운	題詠, 次韻
叢石亭	辛葳	6운	題詠(元韻)
次叢石亭詩韻	李達衷	6운	題詠, 次韻
無盡亭	崔恒	6운	題詠(元韻)
花山君無盡亭詩, 次崔寧城韻	朴元亨	6운	題詠, 次韻

『동문선·칠언배울』에서 次韻詩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관 계성을 중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배울은 조정

의 관리와 문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應酬性이 짙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모임의 主宰者 및 시를 먼저 지은 사람에 의하여 制限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운하여 시를 짓는 당사자들은 조정의 유력자와 군주를 살펴야 하는데, 琴儀의 외손이 태어난 것을 제재로 하여 읊은 배울시와 〈教坊小娥〉·〈扈從安和寺應製〉를 바탕으로 次韻한 詩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教坊小娥〉에 대한 차운시는 강화도 천도 이후 전쟁이 그친 상황을 말하였고, 흥겨운 어린 기녀의 모습과 참여한 관리들의 즐거운 모습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바람을 읊었으며, 다른 문인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시로 보여준다.

이규보는 〈次韻〉에서 “사람의 마음 하나 되어 전쟁이 그쳤네[人心混合偃金戈]”로 시작하여, “생각하니 조정에서 모여서 술 마시는 자리도 드물었고, 하루도 술 마시고 취할 일이 없었네.[因想九重踈宴集, 未容一日示醺醺.]”라고 하면서 강화도 천도 이후 임금과 신하들의 노고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文閣은 시를 잘하는 선비라 아름다우니, 단숨에 시를 읊어 천금과 같은 찬사를 얻었네.[美哉文閣能詩客, 贏得千金一筆哦.]”라고 하여 宴會의 분위기를 잘 묘사한 李需의 시에 대하여 찬사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崔滋의 〈次李需教坊少娥詩韻〉에서는, “공[최우]은 靈瓜와 같은 것을 먹어서 長壽하리니, 지는 해를 구태어 창을 쥐고 못 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白日何勞欲駐戈. 知公萬壽等靈瓜.]”라고 하면서 최우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였고, “나 또한 억지로 화답하여 이수에게 주었지만, 서툰 말 그대로 清河에게 전해졌네.[我亦強賡投隴右, 仍將狂語達清河.]”라고 하여 이수에게 화답하고 최우에게 시가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어여쁜 小娥의 노래로 토벌하길 바라니, 슬프고 원망하는 곡조는 노래하지 말라.[要倩小娥歌薄伐, 哀音怨曲莫吟哦.]”로 마무리하면서 시국에 대한 바람을 읊고 있다. 또한 〈復次韻〉에서는, “자리 위에는 부모님을 모신 관료가 뒤섞여 있다[堂上承歡金印錯]”와 “지금의 음악이 옛 음악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니, 바로 문왕과 무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 것과 같네, 우리 백성이 이 연주를 듣는다면, 즐겁고 기분 좋은 기운이 산과 강에 두루 미치리라.[嘗聞今樂斯爲古, 正似弛文武作跎. 若也吾民間管籥, 欣然喜氣遍山河.]”라고 하여 지금의 조정은 禮樂이 안정되어 있으면서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奉모의 성격을 띠고 정치적인 유력자인 최우와 공유하는 배울이기 때문에, 개인의 眞意보다는

최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교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문선·칠언배울』은 趙永仁·柳公權·崔謙의 應製次韻詩를 수록하고 있다. 배울에서 응제시는 오언배울을 기본으로 하고, 시의 내용은 왕의 교화·시절의 태평함·군신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읊은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應酬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문선·오언배울』은 5제 5수의 응제시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관계성을 지닌 集會뿐만 아니라 科試 혹은 개별적인 君臣 사이에서 지은 시를 반영하고 있다. 조영인은 칠언배울 〈扈從安和寺應製〉에서, “임금의 은혜 바다와 같이 넓으니 물고기와 서로 즐겁고, 임금의 수명 하늘과 같이 오래갈 것이니 학이 절로 부끄러워하리라.[君恩海闊魚相樂, 聖壽天長鶴自羞.]”라고 하여 임금의 올바른 정사와 함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유공권은 〈次韻〉에서, “북쪽 변방에서는 근래에 전란의 기운이 걷혔다는 소식 들리고, 남쪽 고을에서는 이미 많은 농작물 수확했다고 알리네. 태평한 시절 여유가 많아 붓을 휘둘렀고, 巨韻으로 시를 지어 즐거운 유람을 기록하네.[北塞近聞妖霧捲, 南州已報稼雲收. 太平多暇揮神翰, 巨韻成篇記勝遊.]”라고 하여 전란이 그치고 풍년이 들어 태평한 시절을 기록해야 할 만큼 군주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당은 〈次扈從安和寺應製詩〉에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시다 시 읊으며 밖에서 쉬고, 물과 구름 뛰어난 경치를 바라보면서 거두시네. 들판의 할미새 같은 좋은 인척들 하루에 세 번 접견을 받았고, 줄지어 가는 백로 같은 좋은 신하들 한 번 노는 것을 좇았네.[宵旰勤勞吟外歇, 水雲嘉勝望中收. 鵠原懿戚承三接, 鷺序名臣從一遊.]”라고 하여 나라일에 성심을 다하고 화목한 왕실 및 현명한 신하를 대하는 聖君의 모습을 언급한다.

金贊의 〈童女詩〉와 그에 대한 〈次韻〉은 1275년 벼슬아치의 자녀들을 貢女로 보내는 일을 題材로 하여 쓴 것이다. 〈童女詩〉의 題下注에는, “至元 12년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명령하여 좋은 집안의 딸 50명을 뽑아 데려갔으니, 대개 옛날 두 나라 간의 혼인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至元十二年, 命本國選良家女五十人以歸, 蓋取古者昏媾之意也]”라고 하였다. 李守年의 〈北行〉도 같은 내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貢女를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시를 쓰는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려와 몽고의 講和와 관련하여 인질로 보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의 관리나 문인에게 시를 지어 바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불안정했던 四海가 하나의 집이 되

있고, 직명으로 고려에 宮女를 바치라고 하네.[四海遑遑枕一家, 勅令東土進宮娥.]”(〈童女詩〉)라고 하여 講和 이후에 궁녀를 바치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는 童女の 안타까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시의 말미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기러기가 높이 나는 것처럼 하고, 후비도 되어 봉황의 울음소리 어우러지는 것처럼 해야 하네. 게다가 지금 황녀가 출가하여 고려에 있으니, 피차에 황손이라 바로 남이 아니네.[生子若教鴻舉絕, 作妃當協鳳鳴和. 矧今下嫁周姬在, 彼此皇孫正匪他.]”(〈童女詩〉)와 “바다 밖 변방국에서 헌납하는 공물로는 瓊枝가 좋고, 황제의 궁궐에서 입은 은혜 玉露와 같이 온화 하리라. 지금의 사람들 보답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니, 태평한 시절의 수면과 음식 다른 것 때문이 아니네.[海邦修貢瓊枝好, 天闕承恩玉露和. 爲報時人須記取, 太平眠食不由他.]”(〈次韻〉)라고 하여 貢女로 가는 아이들이 고려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한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현재의 태평한 시절이 童女の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문인의 집회 혹은 개인의 특정한 공간에서 경물을 보고 칠언배율로 題詠하는 경우가 있다. 모임에 참석한 문인들이 칠언배율을 활용하여 시를 짓고 차운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즐기며 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문선·칠언배율』에서는 9제 9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李需와 李藏用은 普門寺를 방문하여 20은 40구의 칠언배율로 題詠하고 次韻하였다. 이수능은 보문사의 정경을 시로 읊은 뒤에, “이른 새벽 편경 소리에 변방이 평온해지길 기원하고, 한밤중 울리는 종소리에 나라가 풍년이길 바라네.[寅朝擊磬三邊靜, 乙夜鳴鍾九野豐.]”라고 하여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오랑캐 말을 물리치고 없애 遼北을 안정시키고, 신령한 거북을 길들이고 길러서 海東을 진정시키네. 한 제후의 門人 몇이나 있는가, 세 번째 손님 모두 뜻이 같네. 한 달 동안 營齋하며 은근히 기원하니, 천년이나 크게 繡邸의 행복과 장수를 바라네.[退殘戎馬安遼北, 馴養靈龜鎮海東. 在一侯門人有幾, 第三番客意侔同. 營齋一月殷勤祝, 繡邸千年福壽洪.]”라고 하여 外亂의 안정에 힘쓴 崔瑀의 공적을 높이고 이러한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李藏用은 비슷한 양상으로 시를 쓴 뒤에, “문득 題詠하던 香案吏를 만났고, 여전히 경영하던 黑頭公을 기억하네.[題詠更逢香案吏, 經營猶記黑頭公.]”라고 하여 이수능과 최우를 만나 함께하는 모임을 지적하였고, “벼슬자리도 역시 어긋나 나를 알아주

는 이 적고, 인생이 淡泊하니 스님과 같네. 어느 날에나 임금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筠溪의 늙은 혜홍과 함께할 수 있을까.[何當粗報君恩了, 生涯淡薄與僧同. 官況蹉跎知我少, 來伴筠溪老惠洪.]”라고 하여 나라에 공적을 쌓고 목표를 이룬 뒤에 致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題詠에서 장편 칠언배율의 作詩와 次韻은 景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詩韻을 따르기 때문에, 문인으로서의 박식함과 재주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칠언배율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학적 역량과 經世에 대한 개인적인 포부를 드러내는 기능으로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白文寶의 〈蠹石樓〉와 白彌堅의 〈晉州蠹石樓, 次鄭勉齋韻〉은 蠹石樓 모임에서 차운한 것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진주목·누정』 권30에는 鄭勉齋(鄭乙輔)의 배율시를 가장 앞에 수록하고 있다.¹⁷⁾ 鄭勉齋의 시에는, “유명했던 黃鶴樓 한 시절이었는데, 崔浩는 일별이길 좋아하여 시를 남겼네.[黃鶴名樓彼一時, 崔浩好事爲留詩.]”와 “붉게 분칠한 세 줄의 기녀 옛 노래를 부른다[紅粉三行唱古詞,]”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머리를 돌리니 하늘과 땅 작아 보이고, 이제 우리 고을 특별히 기이한 땅임을 믿네.[倚欄回首乾坤小, 方信吾鄉特地奇.]”라고 하여 蠹石樓에서 벌어진 놀이와 晉州의 아름다운 遠景에 대하여 읊고 있다. 白文寶는, “누대에 올라 예전에 노닐던 때를 아득히 추억하고, 억지로 강산에 답하며 다시 시를 찾네.[登臨偏憶舊遊時, 強答江山更覓詩.]”와 “기생이 가까이 앉아서 즐거움을 더하고, 사람들 시절과 함께 더디게 돌아가려고 하네. 이곳의 고상한 마음 참으로 속세가 아니니, 赤城의 玄圃臺도 여기보다 기이하지 못하리라.[人與時偕欲去遲. 妓從坐促爲歡密, 此地高懷真不世, 赤城玄圃未全奇.]”라고 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곳에서 자신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과 즐거운 흥취는 선경에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白彌堅은 “유람하고 감상하는 일은 不遇한 때와는 관련이 없고, 자연의 좋은 경치 시로 읊어야 하네.[遊賞非關不遇時, 湖山勝景要哦詩.]”와 “한잔 술에 웃고 이야기하며 오로지 회포를 풀고, 삼 일을 오가는데 더디다고 여기네.[談笑一杯聊自遣, 醵來三日以爲遲.]”라고 하여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모임을 자주 하자는 생각을 보여준다.

辛葺의 〈叢石亭〉과 李達衷의 〈次叢石亭詩韻〉도 題詠에서 칠언배율을 활용

17) 『동문선·칠언율시』 권15에서는 5~8구를 제외하고 율시의 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하여 시를 짓고 차운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叢石亭은 述郎·永郎·安詳郎·南郎의 仙徒와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 四仙峯에 오래된 碑碣이 있었으나 닳아서 어느 시대에 세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¹⁸⁾ 辛葺은 四仙의 무리가 노닐던 총석정을 仙境으로 설정하여 景物을 읊은 뒤에, “가을 달과 봄바람은 여전히 예전과 같고, 신선의 옷과 수레는 지금 만나기 어렵네.[秋月春風尙依舊, 霓裳鳳蓋今難逢.]”와 “이끼 낀 비석을 쓸고 지난 일 찾으니, 위에는 水墨의 희미한 흔적 있네.[欲掃苔碑問往事, 上有水墨稀微蹤.]”라는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悲哀를 말하고 있다. 李達夷은 “珊瑚樹·砥柱山·峴山·峨眉山”의 시어를 통하여 총석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고 있으며,¹⁹⁾ “잠시 봉우리 끝에 멈췄다가 문득 말에 오르니, 속세의 천한 사람이라 아직은 높은 자취에 맞지 않네.[小立峯頭便上馬, 塵卑未合攀高蹤.]”라는 것으로 총석정에서 떠나는 자신의 모습이 塵卑의 사람이라 격이 맞지 않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강원도·통천군·누정』 권45에는 辛葺의 배울시 이외에, 순서상으로 李達忠·李穀·鄭俊·成倪·蔡壽의 次韻詩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차운한 시는 이달충의 시와 마찬가지로 신선의 詩想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仙境의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묘사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아쉬움에 대하여 읊는다.

崔恒과 朴元亨은 權攀의 無盡亭에서 모임을 하면서 次韻하고 있다. 崔恒은, “하늘이 아름다운 공간을 아껴 豪傑에게 주었으니, 끝없이 빼어난 경치 모두 漢東에 있네.[天慳異境屬豪雄, 無盡奇觀盡漢東.]”로 시를 시작하여 ‘無盡’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끝없는 주변의 경물을 읊었다. “푸른 도롱이 걸치고 취하여 부축받으며 漁父를 따르고, 흰색 두건 쓰고 노래 목청껏 부르며 牧翁과 함께 하네.[綠蓑扶醉從漁父, 白氈高調伴牧翁.]”에서는 無盡亭에서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權攀의 모습을 漁父와 牧翁에 비유하고, 시의 말미에서는, “이로부터

18) 李穀, 〈東遊記〉, 『稼亭集』 권5, 『韓國文集叢刊』 권3, 131쪽. “然自穿島絕海而南, 可往叢石亭, 其間八九里. 又自叢石絕海而南, …(中略)… 所謂四仙峯者, 其石東立, 其條方直, 大槩如國島, 但其色黑, 其崖石亦參差不正耳. …(中略)… 舊有碑在崖上, 今不見遺跌在耳. 又於東峯有古碣, 剝落磨滅, 無一字可識, 不知何代所立也. 人言新羅時有永郎述郎徒南四仙童者, 與其徒三千人遊於海上, 此碑碣豈其徒所立者耶, 亦不可得考也.”

19) 李達夷의 〈次叢石亭詩韻〉, 『동문선·칠언배울』 권18. “冥搜晨登群玉峯, 海日欲上雲錦濃. 珊瑚樹老枝葉脫, 砥柱湍驚煙霧重. 歲月模糊峴首碣, 風霜寂歷峴眉松.”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 돌아가고자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 공연히 범려의 풍류를 생각하는 내가 부끄럽네.[愧余空憶五湖風, 自是不歸歸便得,]”라고 하여 현실에 얽매인 자신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權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朴元亨은, “이름은 여전히 기린각 위에 남겨졌고, 꿈에서는 늘 앵무주 안에 이르렀네. 정자를 만드니 날마다 修禊할 만하고, 길이 평탄하니 누가 길 끝에서 통곡하던 일 따르겠는가.[名向麒麟留閣上, 夢尋鸚鵡到洲中. 亭開有日堪脩禊, 途坦何人效哭窮.]”라고 하여 조정에서 공을 세운 뒤에 無盡亭을 마련한 權攀을 언급하고, 여기에서의 모임은 蘭亭會와 비견할 만하며, 窮途에 슬퍼하던 완적의 모습을 상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흥취를 즐기고, 한편으로는 曾點처럼 소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權攀을 본받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낸다.

『동문선·칠언배율』은 이외에도 寄贈에 대한 次韻和答과 회고시에 대하여 次韻한 것이 있다. 天因의 〈洪英上人以詩見贈, 次韻答之〉는 洪英上인이 조정에 머물다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를 전개한다. 그는 洪英上인의 성향을 읊은 뒤, “편안하게 물러난 뒤의 여유는 오히려 작은 일이고, 경치 좋은 곳에 일찍 절을 열었으면 하네.[靖退空閑猶小節, 好從佳處早開場.]”라고 하여 상대에 대한 바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次韻答暎上人〉二首는 暎上人과 자신의 인연 및 그의 불법 수행에 대한 頌揚을 주로 말한다. 배율시의 두 번째 수말미에서는, “누가 前生에 인연이 있었는지 알겠는가, 이곳에 다시 와서 寺院을 만들려고 하네.[誰知疇首因緣在, 是處重來結道場.]”라고 하였다. 이것은 暎上인이 시를 보낸 이유가 안부와 함께 寺院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음을 알게 한다. 洪侃의 〈次韻李蒙庵西京懷古〉는 서경의 鳳凰臺에서 읊은 회고시로 李混의 시는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칠언배율을 통하여 회고시를 썼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3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

중국에서 排律詩의 作詩는 七言排律보다는 五言排律의 작품 비중이 크고, 詩選集에서 칠언배율은 제외하거나 소수의 작품을 수록하였다.²⁰⁾ 칠언배율은 문

20) 중국 시선집에서 칠언배율은 『唐音』에서 2수, 『唐詩品彙』에서 4수를 수록하고 있다.

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詩體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성 또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²¹⁾ 특히 칠언배율은 오언배율을 기초로 그 기법을 칠언으로 확대한 시형이며,²²⁾ 주제 역시 오언배율의 선례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동문선·칠언배율』과 『동문선·오언배율』에서 수록한 배율시는 제재와 주제의 측면에서 일부는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동문선·오언배율』은 抒情의 주제를 담고 있는 배율시를 選詩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아래에 제시한 작품에서 ‘題詠·集句·題畫·勸戒·挽章’은 오언배율에서 選詩하지 않은 것으로, 오언배율과 구분할 수 있는 칠언배율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	作詩者	편목	비고
上首相詩	金克己	10운	奉贈(求官)
上琴承制	陳澹	6운	奉贈(求官)
城樓感興 集句	林惟正	7운	集句
普門寺	李需	20운	題詠
三角山文殊寺	李藏用	30운	題詠
臺石樓	白文寶	6운	題詠
叢石亭	辛葺	6운	題詠
無盡亭	崔恒	6운	題詠
寄尙州牧伯崔學士滋	金之岱	6운	寄贈
贈日本師	崔恒	20운	寄贈, 送別
送日本釋大有還國	權近	6운	送別
北行	李守年	10운	儀禮
桃源圖	崔恒	30운	題畫
戒二子	崔恒	16운	勸戒
光陵挽章	崔恒	30운	挽章

金克己의 〈上首相詩〉와 陳澹의 〈上琴承制〉는 求官을 목적으로 奉贈한 것이다. 求官을 목적으로 하는 排律詩는 상대에 대한 頌揚과 自敍의 두 부분으로

21) 강민호, 「두보 칠언배율의 특성과 한계」, 『중국문학』 9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75~99쪽.

22) 松原郎, 「杜甫における排律の完成: 成都期以降における排律の抒情化をめぐる」, 『中國文學研究』 6, 早稻田大學中國文學會, 1980, 60쪽.

나눌 수 있다. 〈上首相詩〉는 10구까지 首相의 인품과 능력에 대한 頌揚과 11구부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담았다. 김극기는 마지막 4구에, “처음 낮은 평정을 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으나, 문득 이전에 사례를 듣고 승진하기를 바라네. 한 손으로 陶鑄의 솜씨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7품 정도로 벼슬을 올려준들 무슨 해가 되겠는가.[初與下流甘鷄退, 忽聞前例望鶯遷. 倘蒙一手霑陶鑄, 增秩何妨七品聯.]”라고 하여 昇進과 관련하여 자신의 바람을 보여준다.

〈上琴承制〉는 樞密院 承制였던 琴儀에게 求官하기 위하여 보낸 배울시이다. 이 배울시는 두 수의 시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시에서는 自敍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화는, “南省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장원을 한 적이 있고, 桂宮의 春試에서 亞元을 다시 받았네.[南省掄材早忝魁, 亞元還領桂宮春.]”라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여 자신의 이력을 간단히 말하고, “나라일 홀로 수고하며 비록 진심을 다하였으나, 나라의 은혜 보답하기 어려워 매번 수건을 적셨네.[王事獨勞雖竭節, 國恩難報每沾巾.]”라고 하여 조정에서 忠心으로 자신의 직책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文章은 아직 집안의 가난을 해결할 정도는 아니네[文章未療病家貧]”와 “금승제의 글씨로 수령 명부에 점을 찍는다[銀鉤若點分憂籍]”에서는 문장으로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의 수령으로라도 보내달라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조정에서는 동시에 천자를 모시고 노니네[內庭兼侍緒袍遊]·詔書의 초벌 원고 글자가 붓끝에서 떨어지네[詔牋鴉字落毫頭]·임금에게 고하는 계책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네[不許人間告后猷]”라고 하여 琴儀가 조정에서 뛰어난 정무 감각과 문장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극기와 진화의 구관을 목적으로 하는 배울시는 승진과 복직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무신정권에서의 관리는 추천을 통하여 조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求官하는 문인은 주로 오언배울을 통하여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었다. 『동문선·칠언배울』의 求官詩는 상대적으로 내용의 간절함에 있어서 이완한 모습을 확인하게 한다.

題詠詩는 『동문선·오언배울』에서 選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칠언배울의 활용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次韻詩를 제외하고 元韻에 해당하는 시를 선별하였다. 〈普門寺〉(20운)·〈三角山文殊寺〉(30운)·〈蠹石樓〉(6운)·〈叢石亭〉(6운)·〈無盡亭〉(6운)에서는 경물과 지역의 고사, 자신의 상황 등을 배울시로 보여주었다. 〈三角山文殊寺〉는 30운 60구의 장편 배울

에 해당한다. 李藏用은, “성 남쪽 십 리 넓은 모래벌판 희고, 城 북쪽 몇 즐기 겹겹의 봉우리 푸르네. 늙은 태수는 거칠고 게을러 일찍 업무를 끝내고, 나가서 노닐며 호탕하게 그윽한 자취를 찾네.[城南十里平沙白,城北數朶重岑碧. 老守踈慵放早衙, 出遊浩蕩尋幽跡.]”라고 하여 지방 수령으로 있으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문수사에 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를 시작한다. 삼각산의 공간은 “楊州·華山·仙洲”와 같이 別天地로 설정하고, “崎嶇石逕·絕谷·危巔·晴峯·雲棧·九十層·石岫” 등의 시어를 통하여 구체적인 景物을 보여준다. 그는, “한 번 돌아 옮겨 기대어 홀로 한숨지으니, 八極을 순간 팔로 휘젓고 다닐 만하네.[一迴徙倚獨嗟咨, 八極須臾可揮斥.]”라고 하여 높은 곳에 올라온 힘겨운 과정과 遠景을 보는 성취감에 대하여 말한다. 문수사에 도착해서는 사원의 정경을 묘사하였으며, “예전 先王이 궁중의 향을 태웠다는 일 들었고, 지금은 궁중의 使者가 종묘사직을 기도하네.[聞昔先王焚御香, 至今中使祈宗祏.]”라고 하여 문수사의 과거와 현재를 말한다. “스님의 좌선하는 걸상 조용하고 적막하니 가장 아끼고, 문득 사람의 삶 비웃으니 어찌 그리도 일만 하는가. 아직은 쉽게 벼슬을 그만둘 수 없으니, 혹시 功名을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最憐禪榻靜寥寥, 忽笑人生何役役. 未能容易掛衣冠, 倘可功名垂竹帛.]”에서는 속세와 떨어진 공간에서 수련하는 스님과 현실의 삶을 이어나가는 자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스스로 功名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인지 自問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속세의 말로 푸른 산을 더럽힌다고 꺼리지 말라, 일찍이 조정에 숙직하며 임금의 명령을 起草하였네.[莫嫌塵語汚青山, 曾演綸言直丹掖.]”라고 하여 지방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문수사를 방문하였지만, 조정에서도 문서를 다루던 관리였다는 자부심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題詠의 칠언배율은 자유로운 편폭의 설정과 七言이라는 글자 수의 확대를 통하여 공간을 찾게 된 이유·이동하는 과정·구체적인 경물의 묘사·다양한 감정표현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詩體라고 할 수 있다. 『동문선·칠언배율』은 이러한 활용의 측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題詠의 칠언배율을 選詩했다고 볼 수 있다.

寄贈과 送別의 배율은 <寄尙州牧伯崔學士滋>·<贈日本師>·<送日本釋大有還國> 3편을 選詩하였다. 『동문선·오언배율』에서는 10편의 작품을 選詩한 것과 비교해 보면, 칠언배율에서의 활용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金之岱의 <寄尙州牧伯崔學士滋>에서 시를 보내는 목적은, “공께서 仲秋의 약속 저버린 것

아쉬우니, 다시 중앙절에 국화주 마시길 기약하네.[嗟公虛負中秋約, 更約重陽飲菊香.]”라고 한 것처럼 만남을 기약하는 데 있다. 權近의 〈送日本釋大有還國〉은 공적인 사신의 임무가 아닌 개인적 용무로 왔다가 가는 일본 스님을 전송하면서 지은 배울시이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스님의 모습은, “對馬島의 구름 빛은 고향의 숲 밖에 있고, 鵠峯의 가을 모습은 客窓 안에 있네.[馬島雲光鄉樹外, 鵠峯秋色客窓中.]”라고 하여 對馬島와 鵠峰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다 드넓어 蓬壺가 아득히 이어졌고, 하늘 나직이 북두성은 맞닿아 일렁이네. 친구들 눈을 비비며 알아보는 이 적을 것이니, 옛 골짜기 소나무 가지는 모두 동쪽을 가리키네.海闊蓬壺連浩渺, 天低星斗漾冲融. 故人刮目知多少, 舊壑松枝盡指東.”라고 하여 귀국하는 스님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상상하였으며, 달라져 보이는 스님의 모습에 고향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권근은 계속하여 스님을 생각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동쪽을 가리키는 소나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崔恒의 〈贈日本師〉는 佛法의 경지가 높은 스님이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다. 시에서는 “스님은 불법을 수행하여 불교의 善業을 올렸고, 사신으로는 임금을 독대하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였네. 일찍이 조공할 물건을 가져와 궁궐의 계단에 올랐고, 바로 조서를 받들어 시모노세키로 돌아가네.[師也圓機鳴業白, 吏乎專對罄忠丹. 曾齋玉帛趨丹陛, 仍奉絲綸返赤關.]”라고 하여 스님의 佛道에 대한 깊이와 사신으로 오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갑자기 국상을 만나 슬픔이 뼈에 사무쳤으나, 새로운 군주를 보며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네. 엄숙한 한나라의 禮儀와 制度 기쁘게 다시 보고, 성대한 주나라의 음악 흔쾌히 다시 감상하네.[奄闕天光悲入骨, 新瞻日角喜浮顏. 漢儀肅穆欣重覩, 周樂颯沓快再觀.]”에서는 스님이 세조가 昇遐한 뒤에 즉위한 예종을 알현하기 위한 使節에 속하여 왔음을 언급하고, 최항은 어려움을 수습한 조선의 성대한 모습을 보게 된 기쁨을 동시에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는, “늦은 밤 홀로 둥근 달그림자를 마주하니, 靑丘의 한 늙고 힘없는 사람을 기꺼이 생각하러나.[夜闌獨對金盆影, 肯憶靑丘一老孱.]”라고 하여 지금의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쓰면서 시를 마무리한다. 『동문선·오언배울』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방문한 사신에게 주는 배울을 많이 選詩하였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按察·守丞으로 임무를 띠고 가는 관리에게 주는 시를 수록하

였다. 시의 내용은 상대에 대한 頌揚과 나라 안팎의 정황을 자세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의 말미에는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공적인 측면에서의 기대를 드러낸다. 『동문선·칠언배울』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排律詩를 選詩하였지만,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적 친분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作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문선·칠언배울』은 集句·題畫·勸戒·挽章의 배울시를 選詩하였다. ‘集句·題畫·勸戒·挽章’의 배울시는 『동문선·오언배울』에서는 選詩하지 않았기에, 편찬자의 시선에서는 ‘集句·題畫·勸戒·挽章’의 칠언배울이 오언배울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林惟正의 〈城樓感興〉은 集句詩이다. 集句詩는 문학사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배울시에서 集句를 통한 作詩는 드문 일이다. 조선시대 李晬光은 『星湖僿說·詩文門』에서, “또한 七言의 七言排律이 있으니, 이것은 古今에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한 것이다.[又有七言七韻排律, 此古今所無者, 我東人發之也.]”라고 하여 임유정이 集句詩로 作詩한 배울을 평가하고 있다. 崔恒의 〈桃源圖〉는 題畫詩이다. 題畫詩에서 칠언배울의 선택은 그림을 소장한 사람에 대한 서사와 그림의 묘사, 自敍를 포함하기 유용한 詩體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10 구까지는 桃源圖를 보고 桃園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묘사를 하였고, 11~34 구까지는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과정과 무릉도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한 광경을 표현하였다. 이후의 시구에서는, “구름과 비는 두 손을 뒤집듯 몇 번이나 했으며, 천둥과 번개는 한평생 어떻게 누르겠는가[雨雲兩手幾翻覆, 雷電一生何控搏]. 어지러운 벼슬길의 심정 참새 두려운 사마귀와 같다[擾擾宦情螻蝻雀]. 자주색 인끈과 황금 인장의 벼슬살이 위태로울 뿐이다[紫綬金章已而殆]”라고 하여 현실의 무상한 모습과 관리의 삶을 언급하면서 무릉도원의 평안한 모습을 동경하고 있다.

崔恒의 〈戒二子〉는 “두 아들에게 허리에 맨 띠에 적도록 하였다.[令兩兒. 書紳]”라는 題下注의 당부를 함께 써 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조정의 관리로서 겪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훈을 자세히 말한다. 시의 서두에서는, “가만히 나를 잊고 神凝을 배우려고 하는데, 火宅에서 분주하니 한중막처럼 힘겹네. 좁은 세상의 是非에 근심은 더욱 심해지고, 공허한 得失에 병은 다시 더해지네. [坐忘子欲學神凝, 火宅奔趨惱鬱蒸. 蝸角是非憂轉劇, 龜毛得失病還增.]”라고 하

여 조용한 공간에서 속세를 잊은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의是非와得失로 인하여 쉽지 않음을 호소한다. 그래서 그는 “志節·心源·麴生·妖物·一動或狂·三緘·三緘乍放·面諛·膚受”와 같이 경계해야 할 것을 對仗의 형태로 나열하고, “말없이 잠잠하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심하고 삼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팔을 건어붙이고 억지로 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네.[守默勿嘲人短劣, 撝謙莫詫己才能. 居高唯念小心翼, 遇險但思攘臂仍.]”라고 하여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면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삼가고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당부한다.

〈光陵挽章〉은 광릉에 안장한 세조를 위하여 지은 칠언배율이다. 최항은 癸酉靖難에서 공신으로 인정받았으며, 세조 시절에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挽章은 상대의 功德과 함께 죽음을 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항은 세조와 자신의 관계, 세조가 생전에 이룩한 업적,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애도를 30은 60구의 칠언배율로 보여준다. 시의 서두에서는, “큰 덕은 당연히 하늘의 운명을 받은 것이고, 하루아침에 용이 하늘 높이 올라갔네.[大德端宜大命膺, 一朝龍向九霄騰.]”라고 하여 세조가 昇遐한 사실을 먼저 지적하였으며, 10구까지는 세조의 성대한 덕(盛德)과 빛나는 큰 공적(隆功)을 중국의 聖皇과 비교하면서 드러내었다. 11~32구까지는 세조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삼황오제의 교화를 넘어서니 일찍이 본 적이 있었던가[化超三五見何曾]”라고 하여 갈무리한다. 33~42구는 세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함께, “萬世에 존경하고 숭배하여 세조로 받들고, 三光이 밝게 빛나니 광릉이 밝네.[萬世尊崇推世祖, 三光炳耀燿光陵.]”라고 하여 廟號로 尊崇한 모습을 언급하였다. 43~60구까지는, 세월은 無常하다는 것과 “삼가 문장으로 미약하나마 은혜를 갚고, 그릇되게 정승의 자리에 외람되게도 선발되었네.[祗把槩鉛微報效, 謬參鈞軸忝甄陞.]”라고 하여 자신이 조정에서 세조 덕분에 정승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시의 마지막에는, “어찌 눈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이겠는가, 이로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유독 이길 수 없네.[豈緣病眼長流涕, 自是摧肝獨不勝.]”라는 것으로 끝없는 아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본고는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 강조’와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 그리고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遊戲的 상황에서의 作詩 강조’는 遊宴·賀禮·謝禮 등의 유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의례적 행사에서 문인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칠언배율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應酬性이 높은 次韻詩의 수록’은 送別·寄贈·和答의 次韻相酬하는 경우가 많은데, 次韻詩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활용성의 반영’은 『동문선·오언배율』에서의 選詩 경향인 전통적 배율의 기능성을 포함하여, 한편으로는 오언배율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칠언배율은 求官의 奉贈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함을 보이지만, ‘題詠·集句·題畫·勸戒·挽章’의 題材는 오언배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題材는 칠언배율의 활용에 있어서 오언배율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칠언배율은 唐詩에서 작품의 숫자 적고, 일부 문인들에 의하여 作詩가 이뤄졌기 때문에, 역대 詩選集에서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동문선·칠언배율』은 38제 40수의 칠언배율을 수록하고 있으며, 편폭은 6운부터 장편의 30운까지 포함하고 있다. 作詩者는 고려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총 28명을 선별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문선』에서의 칠언배율에 대한 選詩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측면과 칠언배율의 選詩 樣相을 통하여 구체적 詩體의 활용 양상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鄭麟趾 外, 『高麗史』
——, 『신편 고려사』, 고전연구실 옮김, 신서원, 2001.
- 金宗瑞 外, 『高麗史節要』.
——, 『신편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신서원, 2004.
- 李 穀, 『稼亭集』, 『韓國文集叢刊』 3, 민족문화추진회, 1996.
-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後集』, 『韓國文集叢刊』 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 徐居正 外, 『東文選』.
——, 『國譯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69.
- 李 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89.
- 崔 滋, 『補閑集』. 고서간행회, 1911.
- 강민호, 「杜甫 七言排律의 특성과 한계」, 『중국문학』 93,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75~104쪽.
- , 「白居易 七言排律의 성취와 의미」, 『중국어문학지』 72, 중국어문학회, 2020, 33~66쪽.
- 강필민, 「文學集會와 齊梁詩風의 상관성」, 『중어중문학』 5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3, 3~35쪽.
- 김준연, 『당대칠언율시연구』, 역락, 2004.
- 이희영, 「李奎報 排律研究(3) : 致仕 以後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1, 255~284쪽.
- , 「『東文選』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8, 동양고전학회, 2022, 9~46쪽.
- 진백해 지음, 『당시학의 이해』, 이종진 옮김, 사람과책, 2001.
- 龔克昌, 「古代賦의 興起·繁榮·發展及現代辭賦의 創作」, 『遼東學院學報』 11(4), 2009, 35~46쪽.
- 郭新和, 「試論元白詩派의 五言長篇排律」, 『河南師範大學學報』 24(1), 1997, 77~80쪽.
- 杜學霞, 「元稹排律創作的得失」, 『人文社會科學學報』 30(3), 南都學壇, 2010, 71~

74卒.

劉慧寬,「長吟與苦怨: 試論柳宗元長篇排律詩的創作」,『哲學與人文科學』,2015(5), 90~92卒.

栗山雅央,「『東文選』所収の辭賦類作品について」,『中国文学論集』46,九州大学中国文学会,2017,76~93卒.

松原郎,「杜甫における排律の完成: 成都期以降における排律の抒情化をめぐる」,『中國文學研究』6,早稻田大學中國文學會,1980,44~62卒.

——,「初唐期における五言排律の形成をめぐる」,『中國詩文論叢』1,中國詩文研究會,1982,50~66卒.

松浦友久,「七言排律不盛行の原因: 對偶表現の本質から」,『中國詩文論叢』19,中國詩文研究會,2016,82~91卒.

王順貴,「『唐詩品彙』何以成爲典範的唐詩選本」,『文學遺產』,2013(02),69~83卒.

張一南,「唐代的七言排律」,『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6(7),165~172卒.

前川幸雄,「知的遊戯の文學: 元・白唱和詩の種種相」,『中國文學の世界』5,笠間書院,1981,115~158卒.

鄭佳琳,「五言排律在詩學理論上的闡述過程及命名原理探析」,『文藝理論研究』42(02),2022,184~193卒.

丁放·袁行霈,「宮廷中的詩人與盛唐詩壇: 盛唐詩人身份經歷與創作關係研究之一」,『文學遺產』,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2009(1),29~41卒.

陳美朱,「清代唐人試律選本的特質: 以李·杜詩選為考察對象」,『成大中文學報』55,國立成功大學中文系,2016,241~270卒.

沈文凡,「排律文獻學研究」,陝西師範大學 박사논문,2005.

沈文凡·周非非,「長律」,「排律」名稱之文獻緝考: 以唐宋元明時期作為考察範圍」,『東北師大學報』,2009(6),169~173卒.

彭笑遠,「杜牧律詩變體及其詩學意義」,『貴州工程應用技術學院學報』,北京青年政治學院社科部,2017(4),99~103卒.

許德楠,「鋪敘感慨」的需要,詩體發展的必然: 略論杜詩的排律」,『杜甫研究學刊』80(2),2004,1~11卒.

| Abstract |

A Study on the Patterns of Selecting Poems based on Seven-Word Pailu in Dongmunseo

Lee, Hee-young
Sang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selecting poems based on seven-word Pailu in Dongmunseo. The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selecting poems based on “Dongmunseo” and “seven-word Pailu” in three aspects including “emphasizing poetical compositions in an amusing situation,” “including rhyme-borrowing poems with high responsivity,” and “reflecting various utilization.”

“Emphasizing poetical compositions in an amusing situation” reflects such amusing situations as feasts, celebrations, and appreciations along with social interactions among literary people in a ceremonial situation. It holds significance in the aspect of utilizing seven-word Pailu. “Including rhyme-borrowing poems with high responsivity” had Chawoonsangsu of send-offs, donations, and responses in many cases. The high percentage of rhyme-borrowing poems reflected the culture of valuing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personal aspect. “Reflecting various utilization” includes the functionality of the traditional Pailu, which is the tendency of selecting poems in Dongmunseo·Five-Word Pailu, demonstrating the discernable content. Seven-word Pailu shows sameness as its five-word counterpart in the functional aspect such as Bongjeung of Gugwan, but the materials of “Jyeong, Jipgu, Jehwa, Gwongye, and Manjang” are not found in five-word Pailu. These materials distinguish the utilization of seven-word Pailu from five-word Pailu.

The selection of poems based on seven-word Pailu in Dongmunseo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most faithful in East Asia and examined the utilization patterns of specific poetic forms through the patterns of selecting poems based on seven-word Pailu.

Key words : Dongmunseo(東文選), anthology(詩選集), seven-word Pailu(七言排律), Pailu poem(排律), response(應酬), amusement(遊戲)

투고일 : 2024년 7월 19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14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